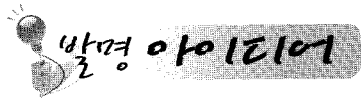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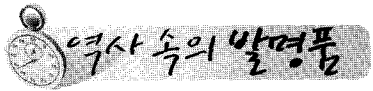


발명은 글로벌 시대를 여는 도전 정신입니다



칼슨의 복사기

타자기의 발명으로부터 1백50년 뒤의 팩스 발명 사이에 복사기만큼 사무실에 혁명을 몰고 온 발명품도 드물 것이다. 복사(xerography)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xeros(마른)와 graph(쓰다)의 합성어로 발명가는 미국의 체스터 플로이드 칼슨이다.

칼슨은 헝가리의 과학자 폴 쉐리니의 이론을 연구하여 복사기를 발명하였다. 칼슨의 기계는 빛, 열, 전기를 사용하여 건조 분말 상태의 염료를 종이에 고정시키는 것이었다. 칼슨은 계속해서 복사 공정을 개선하여 1938년 최초의 복사기를 만들었다. 물론 당시에는 이 발명품의 놀라운 잠재력을 인정해주는 회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1944년 칼슨은 오하이오의 비영리 과학재단인 베텔레 기념 연구소와 계약, 복사 공정의 개발에 들어갔다. 베텔레는 할로이드라는 회사에 특허를 허락했다.

사카이의 생리대

요즘 여성들은 생리 때가 되면 아주 쉽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불과 30여년 전만 해도 여성들은 매일 한번씩 고통을 치러야 했다. 두툼한 기저귀를 밤중에 몰래 빨거나 처리하는 곤혹스러움이란... 이런 문제들을 말끔히 해결하여 여성들을 생리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킨 사람이 바로 일본의 사카이 다카코 여사.

사카이도 생리가 심할 때는 출근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궁리하던 그녀에게 어느날, 후배 하나가 '흡수성이 강한 종이로 만들면 셀 염려도 없고, 화장실에서 감쪽같이 갈아 끼울 수 있을 것이다'는 귀뜸을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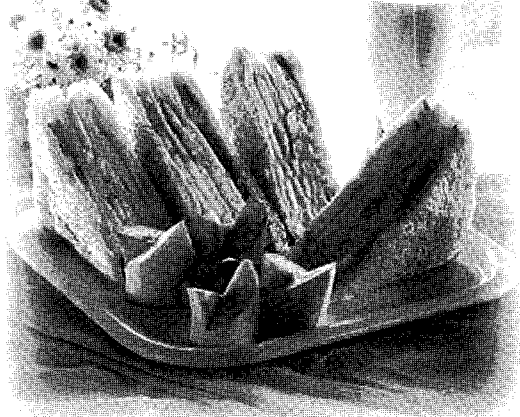
여기서 힌트를 얻은 사카이는 곧 연구에 착수하여 직접 실험해 보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리대는 옆으로 새지 않고 표시도 나지 않았으며 편리했다.

샌드위치 백작의 샌드위치

집안, 야외, 혹은 길거리 등 장소에 관계없이 바쁜 셀러리맨이나 학생들이 간편하게 한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샌드위치는 동서양을 뛰어넘어 인기식품으로 탄탄하게 자리를 굳히고 있다. 이 간편식은 프랑스 샌드위치 백작의 작품이다.

1780년 경 귀족들이 모여 살던 파리 중심가에서는 밤낮 없이 노름판이 벌어졌다. 샌드위치 백작도 예외는 아니어서 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이고 식사까지 거르는 것이 예사였다. 나날이 쇠약해져가는 백작을 보다 못한 하인들이 빵과 고기, 그리고 야채들을 되는 대로 으깨고 버무려 먹기 좋게 뭉쳐서 백작의 손에 쥐어 주었다.

이것에서 힌트를 얻은 백작은 빵과 빵 사이에 고기와 채소를 넣어 익혀서 세상에 내놓았다. 이 음식이 인기절정에 이르면서 '샌드위치'가 되었고 샌드위치 백작도 유명해졌다.



전동식 원고지(서류) 거치대

이 아이디어는 컴퓨터 모니터 좌측 또는 우측에 부착할 수 있는 전동식 원고지 거치대로, 발로 발판 스위치를 밟아 모니터를 구동시킴으로써 서류를 상측 또는 하측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거치대와 달리 문자 식별 언더라인 기능이 첨가되어 타이핑 하고자 하는 문자를 정확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멈춤동작 없이 연속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타이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성

사용용도 : 컴퓨터 워드 작업.

타이핑 문자 확인 : 문자 위치 확인 언더라인이 있음.

서류 이동 : 발로 발판 스위치를 밟아서 이동 가능.

타이핑 작업 : 시선을 문자 식별 언더라인에 고정할 수 있어 정확하고 빠른 타이핑이 가능. 서류를 발로 이동하게 하므로 손 댄 필요가 없음.

응용분야

컴퓨터 워드작업용 전동식 원고대.

기타 원고 타이핑용 및 워드작업용 전동식 원고대.

발명가 : 조장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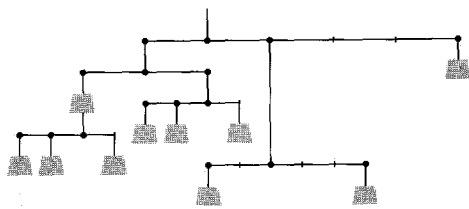
출원번호 : 20000028755

등록번호 : 제221380호

함께 풀어봅시다!

균형 잡아보세요!

아래의 도표에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하나씩 넣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해보자.



해답은 다음 호에...

[지난 호 문제]

계산식 완성해 볼까?

[해답]

$$\begin{array}{r}
 1 \\
 2 \\
 4 \\
 5 \\
 7 \\
 8 \\
 9 \\
 + \\
 \hline
 36
 \end{array}$$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풀이를 기다립니다. 20일까지 여러분들만의 해답을 보내주세요.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 02-538-2710 / 2702 보내실 곳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한국여성발명협회' 앞 (우편번호 135-980) e-mail: kwia@inventor.or.kr

Q 심사관 면담제도란 무엇인가요?

A

1. 제도의 개요

가. 면담의 정의

면담이란 특허·실용신안·의장 출원과 상표의신청의 심사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심사관과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간 당해 출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대면에 의한 의사소통을 말하는 것으로, 면담은 보조적 심사절차로 간주됩니다.

나. 면담제도의 기대효과

본 제도는 출원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심사관과 출원인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방의 요청 또는 신청으로 직접 만나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심사의 신속·정확성을 극대화하고 출원인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면담실

민원인이 사전협의로 심사관과 면담하는 경우이든, 사전협의 없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이든 어느 경우라도 면담장소는 특허청(대전 본청) 3층에 설치된 심사관면담실로 제한되며 면담실에서 민원인은 면담 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면담신청서를 작성한 후 심사관과 면담할 수 있습니다.

2. 면담의 요건

가. 면담인의 자격

- 심사관과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일 것.

나. 면담의 종류

- 본원발명과 선행기술간 대비설명을 위한 면담
-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면담
- 의견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면담
- 이의신청심사에서 주장내용 설명을 위한 면담 등

3. 면담의 제한

- 면담은 면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됨.
- 단순한 사무연락, 심사진행상황에 관한 질의, 심사절차와 관련한 문의 등의 경우는 출원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음.
- 심사관 면담은 기본적으로 심사착수로부터 거절사정 이전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전을 원칙으로 함.
- 심사전치된 출원의 경우에는 심사전치 종결시까지 면담가능 기간으로 함.
- 사전협의(전화 또는 팩스)에 의한 면담일자 확정
- 면담일 전 또는 당일 면담신청서 제출 - 6층 면담실
- 면담 실시
- 면담기록서 사본 1부 교부(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4. 면담 도우미

- 특허청 6층의 면담실에는 면담을 원하는 출원인 등의 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면담 도우미가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면담 도우미는 면담의 접수와 심사관과의 연락기능 외에도 특허청의 제도 홍보는 물론 특허청 업무에 관련된 일반상담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 면담 도우미는 면담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갖추고 민원인의 서식작성 등 편의를 제공합니다.
- 민원인은 면담 도우미를 통하여 특허청에 고충사항이나 제도개선 등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